

## 남북 정상, 사실상 종전선언... 오늘 백두산 함께 오른다

### 9월 평양공동선언 주요 내용

- 상호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추진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 서해경제·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 협의
-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 10월 중 평양예술단 서울 공연
-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
-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
- 동창리 엔진시험장·발사대 영구 폐기
-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추진
-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한반도 전쟁위협 제거  
비핵화 실현 노력  
실질적인 남북 경협  
'평양공동선언' 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핵·전쟁 없는 한반도 시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한반도 전쟁위협 제거, 비핵화 의지 실현, 남북 경협 등을 골자로 한 '평양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파격적 내용의 군사합의서도 도출됐으며, 올해 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20일 백두산을 함께 찾기로 하는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의 상호 신뢰를 과시했다. <관련기사 2·3·4·21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기 위하여"는 선언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또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남북관계를 새롭고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질적 대책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 정상은 '가까운 시일 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내 서울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선언에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했으며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적극 취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 정상은 상호호혜의 바탕 위에서 교류·협력을 증대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는 한편,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선언에 담겼다. 우선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이르면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문화 및 예술 분야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2020년 하계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의 공동 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2032년 하계 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은 물론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일 백두산을 함께 찾기로 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제안하고 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도보다리 독대'가 주목을 받았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백두산 동반 방문'이 백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제14회 14세&세계&경제

나에게 꽤 힘든 학교에서의 마지막 교시 끝 종이 울리면, 더 힘든 학원이 나를 받는다. 나가는 학생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더 힘든 학원이 끝나면 학원 선생님은 산더미 같은 숙제를 선물이라며 주신다. 한숨 소리와 함께 숙제가 끝나면 이제야 풀 같은 잠이 나를 받는다.

조혁 / 장래의 꿈 : 생물학자

방에서는 똥을 쌀 수가 없는데 화장실에서는 쌀 수가 있다.

정승화 / 장래의 꿈 : 요리사(셰프)

광주 시내 중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한 후 중2학생들(만14세)에게 주변에 있는 '경제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고 작은 그들의 세계를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시타미치 모토유키(작가) / 2018광주비엔날레  
\*이 프로젝트는 광주일보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함께합니다. 작품이 실린 신문은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 됩니다.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RICHE 남구 프리미엄, 그 위에 서다

조합원 모집중

▶ 상기 이미지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동 진아리채 에듀파크

<p><b>랜드마크의 시작</b></p> <p>서동의 새로운 하늘, 남구의 뉴랜드마크</p>	<p><b>특급 그린라이프</b></p> <p>단지 바로 옆 광주공원 친환경 단지</p>	<p><b>원더풀 프리미엄</b></p> <p>선호도 높은 중소형에 800만원대 획기적 가격</p>
<p><b>교육 프리미엄</b></p> <p>단지 옆 초중고교에 남구의 든든한 교육환경</p>	<p><b>사통팔달 교통</b></p> <p>광주 전역 어디든 쾌속 광역교통망</p>	<p><b>관리비 절감</b></p> <p>광주 최초 태양광발전 아파트</p>

혁/신/평/면 59㎡ / 84㎡ 문의 062) **675-0100**